



커피숍 天下 ‘광주 장동’

인근 500m 이내 40곳 ‘포화’
2~3곳 추가 입점 준비
쉬운 창업·애프트 전당 기대효과
과당 경쟁에 도산 우려도

학원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광주시 동구 장동일대에 40여개의 커피숍이 밀려 상업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당 경쟁과 무리한 출점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3~4개로 시작됐던 커피숍 출점이 2012년을 거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장동 일대로서만 광주중앙도서관 사이 500m 인근에 40여개의 커피숍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신축중인 상가와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새로 커피숍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 청담동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커피숍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며 광주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이 있는 용평동 전남대 후문 일대 보다 수나 규모 면에서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 지역이 다른 커피숍 밀집지역과 비교되는 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들이라는 것이다. 초창기 이 일대 학원이 상업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원생을 기다리거나 진학 관련 정보를 주

고 받던 커피숍 기능을 하며 성장한 것도 다른 곳과 비교된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와 차별화된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입소문이 퍼져, 외지 사람도 찾아오는 명소가 자리매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곳 점포들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면도로가 넓어 주차장이 편하고 임대료가 비교적 싸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커피숍 입점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이라는 입지도 장기적으로 문화전당 특수를 기대하는 업자들의 창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우수준수 늘어나는 점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커피숍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명소가 되고 있지만 자칫 무리한 창업과 과도한 경쟁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년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박모(48)씨는 “지난해부터 학원이 경기가 위축됐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커피숍이 계속 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커피숍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무분별한 커피숍 입점이 지역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둔 시점에 특수물 노린 무분별한 창업으로 상업성이 떨어지면서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특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상업성에만 치중하는 전련일몰적인 커피숍 양산은 경쟁으로 인한 도산 위험성도 높고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정감있는 커피숍들이 많이 창업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싸이 입은 ‘참이슬’ 美 공략

하이틴진로, 뉴욕 등 전역 판매

소주 ‘참이슬’이 가수 싸이의 옷을 입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 판매된다. 하이틴진로(대표 김인규)는 8월부터 가수 싸이의 사진이 담긴 라벨을 부착한 참이슬을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싸이 참이슬은 ‘참이슬(알코올 19도)’과 ‘참이슬클래식(알코올 20.1도)’ 등 2개 브랜드 용량은 750ml과 375ml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싸이 참이슬 라벨에는 확실성을 들 거나(참이슬)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는(참이슬클래식) 싸이의 모습이 담겼다. 하이틴진로는 전문 프로모션팀을 구성해 8월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빛 값아” 하루 3번만 가능

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빛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빛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와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로우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빛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았을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빛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한다.

나머지 채무자의 경우 현재처럼 금융사가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부속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법 명목 압류를 놓고 논란이 자주 일었다.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을 막고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업계의 자율 규제도 이뤄진다.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을 조치하고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 추심 내역을 녹음해 보존하기로 했다.

연필뉴스

“신용등급 이의 있습니다!”

이달부터 고충처리단 운영

금융사에서 대출할 때 필요한 개인 신용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등급 평가 요소별 변경 비중,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신용조회회사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감원에 민원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월 2회 개인신용 평점 변동 사항을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다.

연필뉴스

주택연금 가입자 신용등급 불이익 개선

금감원 관리규약 개정...담보대출서 제외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이 대출로 분류돼 가입자가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이 8월부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주택연금을 담보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금

융사는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는 별도로 구분,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고 연합회는 이 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대출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연필뉴스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맨 오른쪽)이 31일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왼쪽부터 김용익 동신대 대학원 원장, 김필식 동신대 총장.

‘FOCUS 경영’ 지역경제 기여 송기진 광주은행장 동신대 名博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이 31일 오전 동신대(총장 김필식) 국제회의장에서 FOCUS경영을 통한 금융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송기진 은행장은 2010년 1055억원, 2011년 1363억원, 2012년 1364억원을 시험해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거두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송기진 은행장은 2010년 1055억원, 2011년 1363억원, 2012년 1364억원을 시험해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거두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송기진 은행장은 2010년 1055억원, 2011년 1363억원, 2012년 1364억원을 시험해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거두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홍콩

7월27일,30일,8월2일,5일 2박 4일(총4회)

[CHPF05-NXT] 홍콩/마카오 4일 출발일: 7월 30일 599,000원~	[CHPF07-NXT] 마카오/홍콩/심천 4일 출발일: 7월 27일, 30일 799,000원~
[CHPF05-NXA] 마카오/홍콩 4일 출발일: 7월 27일, 30일 1,099,000원~	[CHPF05-NXC] 마카오/홍콩 4일 출발일: 7월 27일, 30일 1,099,000원~

광주/전남 기획상품

에어텔

세부 4일 / 5일 에어텔 하나 free 699,000원~

미동부 캐나다 8박 10일
출발일 9월 13일(금)
3,990,000원

아나기와 뱃놀이 카멜리아 3박4일
출발일 18~21일 1,368,102,224원~

강원도골프 1일
출발일 9월 6일(금) 145,000원~

강원도골프 2일
출발일 9월 6일(금) 369,000원~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영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임진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관련신고 Tel 1577-1233 ■22일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